

득의양양

得意良揚

: 좋은 양의 해에 좋은 기운과 좋은 뜻을 갖자!



양에 대한 모든 것

2015년 양의 해에
가볼만한 곳한국의 알프스
대관령 양떼목장

IT전망
2015년 IT 트렌드

경제예측과 전망에 대한
대응자세

경제전망
단계별로 살펴보는
2015년 여러 연구소가
바라본 경제전망

창업전망
2015년 창업시장 전망

탐방기사
홍대 캠핑요리 전문점
야외수업을 가자

— 1st 2015 —
 J A N U A R Y
 CONTENTS

- 02 양에 대한 모든 것
- 06 2015년 양의 해 한국의 알프스 대관령 양떼목장
- 08 [연예전망] 2015년 연예계는
- 09 경제예측과 전망에 대한 대응자세
- 10 [경제전망] 단계별로 살펴보는
 2015년 여러 연구소가 바라본 경제전망
- 14 [IT전망] 2015년 IT 트렌드
- 16 [창업전망] 2015년 창업시장 전망
- 28 [탐방기사] 흥대 캠핑요리 전문점 야외수업을 가자
- 29 [연예] 미녀의 탄생 한예슬, 폭발적 인기
- 20 [레저] MTB 한대로 지구상 최고의 스틸을 즐기자
- 21 [경제] 대출직거래 P2P금융 이용률
- 22 [특집] 스타들의 새해 인사



대표 : 고진석
 발행인/편집인 : 정원훈
 기자 : 앤서니 김, 남상열, 전성민, 김소연
 정주형, 이희재
 편집 : 김주은
 필진 : 장대웅, 유광중, 이상규, 김동엽, 박성준
 문성호, Jay Lee, 윤명진, 김성중, 정현욱
 정상균, 임곤태, 배기성

등록번호 : 서울 아02673
 등록일 : 2013년 5월 29일
 발행처 : (주)텐스페이스
 전화 : 070-7168-1111
 팩스 : 02-2168-9887
 홈페이지 : www.koreanjournal.net



득의양양(得意良羊)

: 좋은(良) 양(羊)의 해에 좋은 기운과 좋은 뜻(意)을 갖자(得)!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을미(乙未)년입니다. 12개의 동물 중 8번째에 해당하는 양의 해입니다. 일반적으로 1월에는 토정비결을 보거나, 새해의 운수를 많이 보죠. 재미삼아 회의 때 2015년의 사주를 알아보자고 하였더니, 주역과 사주에 관한 책까지 쓴 저희 기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2015년 을미년에는 음양오행으로 을(乙)은 음에 속하고 미(未)도 음에 속하고 청(靑)의 기운이 깃들여있다. 푸를 청은 진취적이고 직선적이고 활동성이 있는 속성을 가졌지만, 을과 미가 음(陰)의 소심함을 가졌으니 올해에는 항상 조심하며 살고, 때로는 결단성 있는 자신의 확고한 의지로 살아가면 좋은 한해가 될 것이다.” 저희는 편집회의는 놔두고 이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띠별로는 어떠냐고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청산유수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주 중 안 좋은 삼재(三災)가 올 해 끝나는 띠는 토끼띠, 양띠, 돼지띠이며, 각 띠별로 보면, 쥐띠는 인연수를 살피야 하는 연사주, 소띠는 자수성가해야 성공하는 천복사주, 호랑이띠는 지인의 덕을 받아야 사주의 대운을 맞는 복록사주, 토끼띠는 인복을 얻어야 흥하는 사주의 특징을 지닌 인복사주, 용띠는 지인의 덕을 살피야 하는 살사주, 뱀띠는 결혼운에 크게 길흉을 가지는 길연사주, 말띠는 혼인수에 복을 받아야 하는 혼사주, 양띠는 지위를 가져야 흥하는 대운사주, 원숭이띠는 조상덕을 살피야 하는 가택사주, 닭띠는 돈복을 반드시 살피야 하는 재복사주, 개띠는 배우자에 영향을 받는 실사주, 돼지띠는 이성운을 살피야 하는 상생사주다”

아무튼 어려운 말이 많지만, 복이 들어있는 좋은 해에 해당하는 기자들은 희망에 부풀고, 올해가 마지막인 삼재에 해당하는 기자들은 뭐 “올해 조심하면 되겠지”라고 위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주팔자를 맹신 할 필요는 없지만, 삼재수라면 조심하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겠죠. 또한 각각 운 좋은 한 해인 경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야 좋은 한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테마는 바로 ‘2015년 예측과 전망’입니다. 첫 기사는 양의 해이기에 ‘양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양에 관한 여러 상식을 정리한 기사로 시작했고, ‘2015년 양의 해에 가볼만한 곳인 대관령 양떼목장’을 소개하였습니다. 뒤이어 연예전망기사, 경제전망은 ‘예측과 전망에 대한 대응자세’의 칼럼과 ‘단계별로 살펴보는 2015년 여러 연구소가 바라본 전망’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기사는 IT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시장 전망 기사를 실었습니다.

또한 저희 온라인 기사 중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면 유익한 추천 기사를 그 뒤에 소개했는데요.

홍대 캠핑요리 전문점 야외수업의 탐방 기사를, 연예코너에서는 ‘미녀의 탄생’이라는 드라마로 중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다시 누리고 있는 한예슬에 대한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 레저코너에서는 요즘의 트랜드인 산악자전거를 통한 다운힐을 안내하였습니다. 경제코너에서는 대출직거래 P2P금융에 관한 기사를 뽑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들의 새해인사를 사진과 함께 친필 사인을 모아보았습니다.

푸른 양의 해에 항상 건강하시고, 운수대통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언저널 일동



새해 기획기사 양에 대한 모든 것

글 정주형 기자

양(羊)의 글자 형태는 '상서로울 상(祥)'과 같고, 음(音)으로는 밝을 양(陽)과 같아서 서로 통하여 길상의 의미가 있다. 양의 생김새에서 딴 상형문자인 양(羊)은 맛있음(味), 아름다움(美), 상서로움(祥), 착함(善), 좋음 등으로 이어진다. 즉, 큰 양이란 “大羊” 두 글자가 붙어서 아름답다는 뜻의 미(美)자가 되고, 나아(我)의 좋은 점(羊)이 옳을 의(義)자가 된다.

양은 발톱이 있으나 다른 짐승들과 같이 남을 할퀴지 않고, 이빨이 있어도 범이나 사자와 같이 물어뜯지 않으며, 뿔이 있어도 소와 같이 남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의 날인 미일(未日)을 좋은 날로 본다.

2015년 을미(乙未)년에서 '乙'은 을목(乙木)을 뜻한다. 갑오년(甲午年)의 갑목(甲木)이 대들보를 만드는 큰 나무를 뜻하는 데 비해 을목은 연하고 부드러우며 작은 나무를 뜻한다. 즉 화초, 농작물, 유실수를 포함하며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과 기쁨을 주는 초목이다.

'未'는 띠로는 양띠를 뜻하며 땅을 의미하기도 한다. 2015년은 지난해에 이어 청(靑)의 기운이 듬뿍 담긴 '청양(靑羊)'의 해로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푸른색의 의미가 더해져 '청양'이 개인과 가정에 큰 행운을 불러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푸른색은 예부터 지혜와 넓은 하늘, 평화 등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문화에 나타난 양의 상징적 의미

양띠 해는 기미(己未), 신미(辛未), 계미(癸未), 을미(乙未), 정미(丁未) 등 육십갑자에서 순행한다. 양(未)은 12지의 여덟 번째 동물로서 시각으로는 오후 1시에서 3시, 달(月)로는 6월에 해당하는 시간신이며, 방향으로는 남남서를 지키는 방위신이다.

양의 성격이 순박하고 부드러운 것처럼 양띠도 온화하고 온순하여 이 해에 며느리가 딸을 낳아도 구박하지 않는다는 식의 속설이 많이 있다. 양하면 곧 평화를 연상하듯 성격이 순박하고 온화하여 좀처럼 싸우는 일이 없다.

양은 무리를 지어 군집생활을 하면서도 동료 간의 우위다툼이나 암컷을 독차지하려는 욕심도 갖지 않는다. 또는 반드시 가던 길로 되돌아오는 고지식한 습성도 있다. 일단 성이 나면 참지 못하는 다혈질이기도 하다.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양의 습성과 특징에서 착하고(善), 의롭고(義), 아름다움(美)을 상징하는 동물로 양을 인식했다. 즉 양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념은 순하고 어질고 착하며 참을성 있는 동물이다. 양은 어미의 젖을 먹을 때 앞다리를 꼭 꿰는다. 무릎을 꿇고 젖을 빠는 모습에서 은혜를 아는 동물로 늙은 아비 양에게 젖을 빨리며 봉양하는 모습에서 효도를 깨닫게 한다.

양띠 해에 출생하면 아들이나 딸을 가리지 않고 모두 좋아한다. 양띠 딸은 특히 사랑을 많이 받는다. 양띠 여자는 착하고 끈기가 있고 과묵한 성격의 요조숙녀이자 부잣집 만며느리 감으로 인기가 높다. 양띠는 행실이 선량하여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덕을 고루 갖춰 예부터 '구박받지 않는다'는 풍속이 있었다.

행동 습성

산양(염소)과 양은 무리를 지어 사는 기질, 즉 군거성(群居性)이 있으며, 양이 산양보다 더 강하다. 산양은 나무나 바위 등 높은 곳에 오기를 좋아하며, 저습한 곳과 추운 곳을 싫어한다. 또한 행동이 활발하고 민첩하며, 수염기호성을 가지고 있어 풀보다는 오히려 목을 늘여나 못입을 뜯어먹기를 좋아한다. 산양은 또한 불결한 사료나 먹이에 이물질이 섞인 경우 그리고 같은 사료를 오래 주면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양의 경우 산양보다 겁이 더 많으며,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양은 풀을 뜯기를 좋아하나 채식 시엔 혀를 사용하지 않고 입술을 더 사용하므로 풀의 길이가 짧아야 잘 먹는다. 방목 시에는 낮고 습한 곳보다 높고 건조한 곳을 좋아하며, 청결한 곳을 몹시 좋아해 더러운 장소나 불결한 음식을 기피한다. 무리에서 떨어지기를 싫어하고, 무리를 지어 사는 습성이 강하며, 추종심이 강하여 리더를 잘 따르는 성질이 있어서 새끼양을 다수 운반할 때에는 어미 양과 함께 이동하도록 한다.

평화와 순종의 양

성격이 순박하여 양하면 평화를 연상한다. 겁먹은 듯 한 순한 눈망울과 복슬복슬한 털이 덮인 양떼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평화와 안락의 상징으로 충분하다. 양띠해는 그 해의 수호신이라 할 양의 성격을 닮아 평온하고 평화로운 한해가 될 것이다. 양은 언제나 희생의 상징이다. 양의 가장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 그곳은 속죄양(贖罪羊)일 것이다. 서양에서는 사람을 징벌하는 신에 대한 희생물로 바쳐졌으며,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도 제사용으로 쓰였다. 양은 또한 정직과 정의의 상징이다. 양은 반드시 가던 길로 되돌아오는 고지식한 정직성이 있다. 속담에 '양띠는 부자가 못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양처럼 양띠 사람은 너무 정직하여 부정을 못보고 너무 맑아서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양꿈 해몽

이성계가 초야에 묻혀 지내던 시절에 양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양을 잡으려 하자, 뿔과 꼬리가 몽땅 떨어져 놀라 꿈을 깬다. 이 꿈 이야기를 무학 대사를 찾아가 이야기 했더니 대사는 곧 임금에 등극하리라는 해몽을 했다. 즉, 한자의 未에서 양이 뿔에 해당하는 획과 양의 꼬리에 해당하는 획을 떼고 나면 포자만 남게 되어, 곧 임금이 되는 것이다. 그 이후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여 태조가 되었고, 그 이후 양꿈은 길몽으로 해석되었다.

양과 관련된 속담

- 소 잃고 양 얻는다: 큰 것을 잃고 작은 것을 얻어 많은 손해를 당했다는 뜻
- 갑자일에 겨울비가 오면 소와 양이 얼어 죽는다: 겨울철 갑자일 일진에 비가 오는 해는 춥다는 뜻
- 양도 무릎을 꿇고 어미의 은혜를 안다: 양도 어미의 은덕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부모의 은덕을 몰라서야 되느냐는 뜻
- 양고기국이 비록 맛이 있으나 여러 사람 입맛에 다 맞추기가 어렵다: 아무리 잘하는 정치라도 온 국민을 다 좋게 해 줄 수는 없다는 뜻
- 양대가리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 좋은 상품을 걸어 놓고 나쁜 상품을 판다는 뜻
- 이리 앞에 양: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쩌쩌 맨다는 뜻
- 양 열 마리에 목자가 아홉이다: 국민들 수에 비해 관리가 아주 많다.

사주(四柱)에 양을 가진 사람의 성격

사주에 양을 가진 사람의 성격은 온순하고 침착하며 욕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양의 먹성은 다채롭다. 특히 초식동물로 먹을 것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그래서 양띠는 집안 사정이 가난하여도 개의치 않고 학문에 전념한다. 특히 양 중에서도 가파른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양은 산악의 환경에 적응되는 삶을 지배받음으로써 성격이 괴팍해서 극과 극을 달리는 습성이 있다. 양띠도 심한 자존심과 자만심을 내세우며 대인관계에 담을 쌓거나 싫어하며 고독을 씹은 외톨이 인생이 되기도 한다. 양띠의 직업은 대부분 교수직, 교사, 언론인, 문예계 등에 알맞으나 상업, 사업, 정치, 보통 기술직에는 잘 맞지 않는다.

2015년 양의 해에 가볼만한 곳 한국의 알프스 대관령 양떼목장

글 사진 이희재 기자



대관령 양떼목장은 우리나라 유일한 양 목장이다. 엄연히 말하자면 목장 개발의 목적이 아닌 목장 가꾸기의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서 강원도 대표 여행코스 중 하나이다.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목장의 모습을 통해 자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곳으로서 2015년 양의 해를 맞이해 방문하기 딱 좋은 여행지이다. 양떼목장으로 향하는 길은 지루할 틈이 없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커다란 풍력발전기가 보이고 하늘 아래 첫 동네 대관령 양떼목장과 마주할 수 있다. 목장체험료는 성인 4천원, 소인 3천5백원으로 비교적 저렴하다. 목장 체험료에는 먹이주기 체험을 포함한 가격으로서 양에게 직접 건초를 주는 체험이 가능하다. 원을 두르듯한 1.2km의 산책로는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걷기 좋다.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는 움막은 또 다른 볼거리로서 정상에서 만날 수 있는 움막은 대관령 양떼목장 풍경의 백미이다. 푸른 초지가 바람에 흔들거리는 아름다운 목장에서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마치 알프스에 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한편 겨울에 운이 좋으면 하얀 설원을 그대로 만날 수도 있다. 우윳빛깔의 설원과 쪽빛의 하늘이 만들어내는 장관이 일품이다. 산책로 끝자락에 위치한 커다란 나무에는 그네가 덩그러니 매달려 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 번씩 타면서 또 다른 추억을 쌓아보는 것도 괜찮다.





대관령고개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양떼목장은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양을 방목하는 공간이라는 특이함 외에는 찾기 힘든 오지에 불과하였다. 십 수 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이 찾고 싶은 공간으로 단장한 목장 주인의 노력과 그 결실이 놀랍기만 하다. 특별한 시설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한 시간 정도 여유로운 걸음으로 둘러보기에 알맞은 산책로와 너른 초원 위에 변화를 주듯 놓여있는 벤치와 피아노, 영화 촬영 장소로 더욱 유명해진 다락 공간을 사진으로 담아보자.





2015 연예계 전망

어제도 마감 일자를 맞추느라 쪽잠을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한다. 급한 마음에 셔츠 단추를 잘못 채웠다. 하지만 이미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방법이 없다 전부 다시 풀고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만 한다. 글 앤서니 김 기자



한류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 자본 *자료=업계 종합

투자주체	대상	사업내용	규모
중국 자본 컨소시엄	메가박스	경영권 인수	5700억원
홍콩미디어아시아그룹	SM엔터테인먼트	합작펀드 설립	1000억원
화처미디어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경영권 인수	535억원
주인인터내셔널	초록뎀미디어	경영권 인수	120억원
룽전엔터테인먼트	코어콘텐츠미디어	걸그룹타이라중국매니저먼트	50억원

2015년 새해 연예계는 열애기사로 첫 단추를 끼웠다. 데뷔 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남자 배우와 재벌가의 이혼녀의 만남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핑크빛 만남이라고 떠들어 대지만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다. 해마다 새해 첫날은 열애설로 시작한다 하지만 올해는 여느 해와는 좀 다르게 다가온다. 두 사람의 연애보다는 과거행적에 더 치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자극적으로 점점 더 말초신경계로 이동하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당분간 이런 경향은 계속 될 것 같다. 여전히 걸그룹들은 청각보다는 시각을 자극하려 할 것이고, 드라마는 막장으로 치달을 것이다. 마약,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들이 소재로 사용되기 시작할 것이고 베드신과 키스신들도 더욱 노골적으로 묘사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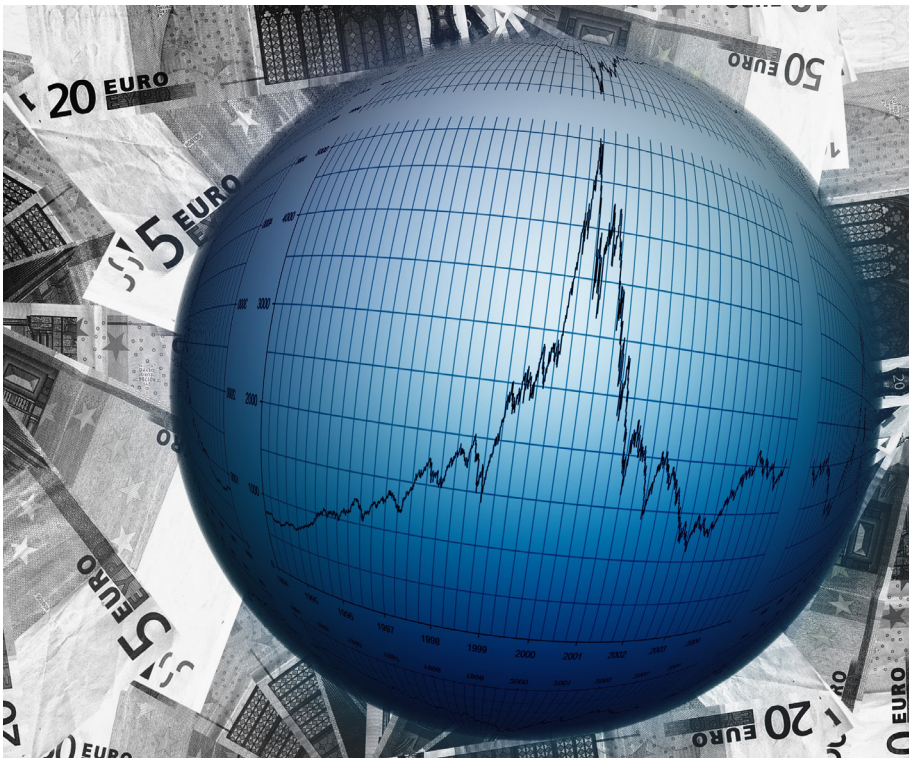
이렇게 점점 연예계가 자극적인 소재로 흘러가는 것은 tv에 한정되어있던 매체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태블릿등으로 다변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전에는 쇼파에 앉아서 도는 바닥에 뒹굴면서 tv를 보았지만 지금은 이동 중 모바일 기기로 콘텐츠를 접하기 때문이다. 개방된 공간에서 집중되지 않은 분위기속에 주어진 시간도 짧다. 그 안에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려면 자극적으로 더 자극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또 한 가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면 90년대 컬처의 귀환이다. 응답하라 시리즈로 촉발된 추억팔이가 인기를 끌면서 무한도전에서 기획했던 토토가로 정점을 찍었다. 친편일률적인 요즘 아이돌 음악에 질린 기성세대들이 옛날 아이돌을 찾게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90년대 음악들이 속속 차트에 재진입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90년대 추억팔이는 계속 될 것 같다.

2015년에는 한류의 위기가 올 것으로 전망 된다. 일본은 아베정권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서 극우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있고 이 영향으로 혐한 세력이 점점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에 방영되고 있는 한국드라마의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아이돌 음악과 아티스트음악이 하나로 융합되면서 실력 있는 아이돌들이 일본에서도 생겨나고 있어 k-pop의 설자리는 점점 더 없어져가고 있다.

한류시장의 양대 산맥인 중국은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류를 사들이고 있다. 한중 FTA의 타결로 엔터 시장이 개방 되면서 한국의 대표 드라마 제작업체인 초록뎀 미디어를 비롯한 여러 콘텐츠 제작업체들이 중국에 매각 되거나 협상이 진행 중이다. 중국자본이 밀려들어오면 단기적 가시적으로는 좋은 성과들이 보이겠지만 한류의 미래를 놓고 보았을 때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한류라 함은 대한민국의 문화인데 중국 자본이 잠식하게 되면 당연히 중국의 사상과 문화가 녹아들어간 콘텐츠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한류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연예계는 이미 첫 단추가 끼워졌다. 맞는 구멍에 잘 들어갔는지는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계속 말초신경계를 자극하는 기사들로 한해가 채워져 간다면 다시 풀고 채우는 비생산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 연예기자들도 자극적인 단어와 과거 들추기 식 기사, 화제의 키워드 끼워 넣기 기사보다는 양질의 정보와 분석 자신의 논지를 앞세운 좋은 기사를 생산 해야 할 것이고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들도 일시적인 재미만을 기치로 세우지 말고 한류의 미래를 위해 질 높은 콘텐츠에 열광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경제 예측과 전망에 대한 대응자세

코리언저널 정원훈 편집국장

증권 및 투자 쪽에는 오래된 유머가 하나 있다. 한 투자가가 여러 번의 투자실패를 가져온 후 이에 대해 고민하며 많은 곳을 헤매다가 히말라야의 성인을 찾아갔다고 한다. 히말라야의 성인은 “BLASH”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다.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고민하다, 집으로 돌아온 그에게 아들은 이렇게 말한다. “Buy Low and Sell High인 거 같아요”라고 말한다. 즉 낮은 가격에서 사고,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이다. 문제는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를 묻는 질문에 필자는 단연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왜 수 많은 경제연구소들은 경제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일까? 또 그들의 주장은 과연 맞았을까?

토머스 키다가 쓴 “생각의 오류”를 보면, 경기예측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는 오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70~1995년까지의 경기예측 정확도를 분석한 열 두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본 결과, 경제학자들은 주요한 경제적 전환점들을 예측하지 못했다. 어느 연구에서는 연방준비회와 경제자문위원회, 국회예산청, 제너럴 일렉트릭, 경제분석국, 국립경제연구국 등과 같은 주요 경지예측기관들이 8분기 동안 국민총생산과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면서 저지른 오류 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전환점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마흔여덟 번 중에서 마흔여섯 번이나 되었다.”

그러면서, 저자는 그 이유를 “변화를 예측하면 예측방향이 틀리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1000개의 방정식을 가진 거대한 모델에 기초한 예측도 방정식이 몇 개밖에 안 되는 모델과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특정한 믿음이나 가설이 경기예측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기관이나 연구소에서 그렇게 틀리면서도 발표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정부정책을 결정하거나, 기업의 1년 사업계획을 위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매년 틀린 발표이지만, 유연성 있게 대처하려고 노력하며, 이러한 예측의 불완전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근거를 눈 여겨 보라.

정부기관이나 연구소들의 경기성장률 예측 치들이 나오면 정부정책, 기업정책이 어떻게 변할까? 어떤 의도를 가졌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유명하니까? 지금까지 잘 맞았어!”가 아닌 그것을 발표한 주장의 근거, 의도, 파급효과를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둘째, 과신하지 말라!

어떠한 주장도 과신은 하지 말자. 그건 전문가도 빠지는 오류이다. 데이비드 드레먼은 “역발상 투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를 가르쳐준 전문가들에게 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최근 다시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예측을 맹신하지 않고, “긍정적인 의심”과 그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놓고, 이를 어떻게 나의 투자에 적용시킬까를 고민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단계별로 살펴보는 2015년 여러 연구소가 바라본 경제전망

연구소는 각 집단의 싱크탱크이다. 싱크탱크란 그 이해관계대상자들의 논리를 만들며 그들의 전략을 세우는 곳이다. 백과사전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 스템을 포용하고 중립의 입장에서 정치적 관점에서 정책입안의 기초가 되는 각종 시스템을 개발 연구하는 독립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연구소의 경제전망을 그냥 숫자

만 보는 즉 표피적으로만 본다. 다시 말하면, 몇 퍼센트가 올랐지만 주목하지만,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에 대한 근거이다. 그 근거를 그들의 이해관계 즉 소속되어 있는 곳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연구소는 정부에 대한 예산 및 운용전략을 세우는 곳이며, 금융기관의 연구소는 그 금융기관에 맞춘 전략을 세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경제전망에 대한 기사는 3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경제전망들을 정리해 보았다. 글 정원훈 편집국장

1단계 두가지 준비

1. 이해관계를 유념하자.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는 논리와 전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 아쉽게도 경기침체일 경우 국책 연구기관들은 다른 연구소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금융기관의 경우는 어떨까? 금융기관 특히 은행은 어떻게 될까? 은행의 경우는 사실 예대마진으로 먹고 사는 곳이다. 예대마진이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라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와 지출에 대한 부분의 전망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에 맞춰 전망을 뽑아내며, 또한 그들의 운영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기업은 어떨까? 기업의 연구소는 그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경제전망을 하며, 그 기업이 속한 분야는 더욱 더 신경을 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느 곳이든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처해진 상황에 맞춰서 세상을 보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근거로 기업을 바라보자. 본 기사에서 제시하는 전망표는 바로 그러한 이해관계대상자를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2. 용어의 이해

각 연구소의 전망을 정리한 표에서 나오는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등 용어들이 조금은 낯설고 어렵다. 그 정의를 먼저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아래의 정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e-나라지표의 정의를 기준으로 조금은 쉽게 풀어보려 한다.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 rate)이란 일정기간 동안 각 경제활동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보기 위한 지표로서 한 나라의 경제가 이룩한 경제의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GDP(국내총생산)와 GNP(국민총생산)가 있는데, GDP는 소유에 관계없이 한 나라에 있는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만들어낸 최종생산물의 합인 생산활동지표이며, GNP는 한 나라가 소유한 생산요소를 국내외의 생산활동에 참여시킨 대가로 받은 소득을 합쳐하여 산출하는 소득지표이다. 당초에는 거시경제분석의 초점이 소득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GNP를 경제성장의 중심지표로 삼았지만,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의 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노동이나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지표에 가까운 GNP기준 성장률이 국내경기 및 고용사정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각국은 경제성장의 중심지표를 GDP로 바꾸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추세에 발맞추어 1995년부터 중심지표를 GDP로 변경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소비자물가(지수)

물가는 물건 즉 상품의 가격이다. 소비자물가는 소비자가 쓰는 상품의 가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매월 상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률을 측정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부담, 구매력 등 측정에 활용한다. 도시가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

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라 할 수 있는데, 2010년을 기준(=100)으로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0,000 이상인 품목 481개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경상수지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하나씩 잘라보면 오히려 이해하기 쉽다. 경상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항상 있는 일로 발생함을 의미한다. 수지는 수입과 지출의 약자로 볼 수 있다. 풀어보면, 경제활동이라는 상황안에서 벌어진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데, 한 국가가 실물부문에서 외국과 실행한 거래결과 벌어들인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분된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이며,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유학·연수, 운수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 거래 관계가 있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라 할 수 있다. 흔히 경상수지 흑자라는 말이 언론에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에 판 재화와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으므로 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보다 크게 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그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실업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사대상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고용지표를 조사하여,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취업자의 정의를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자로 가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상황은 취업자수 증감을 주요한 기준으로 실업률 등을 여타 고용지표를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고용지표는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석상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지표는 계절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2단계 각 연구소의 전망치 즉 숫자에 대한 고찰

1. 정부 유관기관의 전망

정부의 싱크탱크들을 먼저 살펴보자. 크게 4곳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정부의 정책집행방법은 크게 두가지라 할 수 있다.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와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한국은행이다. 여기에 국가의 예산을 짜는 국회예산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인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를 빼놓을 수 없는데,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는 1971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과학분야 종합정책연구소이다. 거시경제, 금융, 재정, 사회보장, 노동, 산업, 무역, 시장개혁, 북한경제 등 경제·사회 제반 분야의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수립과 제도개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보면, 4곳 모두 2015년을 성장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3.4%에서 3.8%로 0.3%로지만, 미미한 성장으로 예측하였고, 한국은행의 경우 3.5%에서 3.9%로 0.4%의 성장을 국회예산처의 경우 3.6%에서 3.8%로 0.2%의 증가를 전망하였다. 이에 반해 KDI는 3.4%에서 3.5%로 0.1%가 가장 낮게 잡아서 결론적으로 저성장의 기조가 여전하다는 전망이다. 상반된 전망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 즉 설비투자의 경우 KDI만 4.7%에서 3.3%로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대내외 경기여건이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 의한 저조한 매출액 증가세 및 낮은 영업 이익률 등으로 인해 증가세를 2014년(4.7%)보다 낮은 3.3%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소비자 물가에 대한 전망이다. 모두 2014년 1%대에서 2%로 진입한다고 보는데, 이는 성장률 하락과 민간소비 위축, 투자정체 등의 기조가 고착화 되었다는 근거를 주장한다.

구분	기획재정부		KDI		한국은행		국회예산처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경제성장률	3.4	3.8	3.4	3.5	3.5	3.9	3.6	3.8
민간소비	1.7	3	1.7	2.3	2	3.5	2.4	3.3
설비투자	5.3	5.8	4.7	3.3	5.2	5.9	6.4	6.7
건설투자	3.2	5.2	4.3	4.7	1.9	3.3	1.7	2.4
소비자물가	1.3	2	1.3	1.8	1.4	2.4	1.7	2.3

경상수지	890	820	905	890	840	700	832	792
실업률			3.6	3.5	3.5	3.3	3.5	3.3
원달러 환율							1039	1059

2. 은행유관기관들의 전망

금융유관기관들 중 은행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먼저 금융기관 전체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한국금융연구원과 대표적 은행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보고서들의 전망을 참조할 수 있다. 역시 설비투자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데, 한국금융연구원만 5.3%에서 7.9%의 증가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정부의 투자유인책,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등을 들고 있다.

구분	한국금융연구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우리금융 경제연구소		하나금융 경영연구소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경제성장률	3.5	3.7	3.6	3.7	3.5	3.7	3.5	3.7
민간소비	2.1	3.3	2.4	3	2	3.1	2.1	2.9
설비투자	5.3	7.9	6.1	5.1	5.9	6	5.6	4.8
건설투자	3.3	4.4	2.5	3	2.7	3.7	1.7	3.9
소비자물가	1.3	1.6	1.9	2.6	1.4	1.8	1.4	2
경상수지	852	793	840	650			865	767
실업률			3.5	3.3				
원달러 환율	1046	1050	1047	1050	1050	1070	1042	908

3. 대기업 연구소의 경제전망

대기업 연구소는 현재 경제전망보고서를 따로 공개하지 않은 삼성경제연구소를 제외하고 포스코,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현대경제연구원만 3.6%의 성장을 보고 있으며, 설비투자의 경우 포스코는 전년도 대비 증가를 보고 있지만, LG경제연구원은 6%에서 3.7%의 증가라는 비관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그 근거로 수출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공급과잉 우려가 남아 있는 자본집약적 산업부문의 투자는 크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들고 있으며, 기업수익성의 지속적인 악화를 그 근거로 본다. 특히 그동안 국내기업들이 중국업체들의 생산규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던 장치산업 부문에서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라 보고 있는데,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향후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계속 줄어들어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설비투자 증가세를 가장 낮게 보고 있다.

구분	포스코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소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경제성장률	3.5	3.7	3.7	3.9	3.6	3.6
민간소비	2	2.9	2.3	3.2	2.3	2.6
설비투자	5.5	7	6	3.7	5.7	5.1
건설투자	1.8	2.1	2.1	4.1	1.9	3

소비자물가	1.6	2.5	1.7	2.2	1.7	1.9
경상수지	810	600	813	610	800	680
실업률	3.6	3.3	3.5	3.4	3.6	3.4
원달러 환율	1046	1060	1040	1010		

3단계 각 전망에 대한 근거

전체적인 연구보고서들의 근거를 보면, 세계경제의 경우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OECD보고서의 경우 전세계적 경제 활동 증가와 교역 확대에 의해 2014-2015년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나,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 금융 환경의 개선, 시장 우호적인 통화 정책 및 재정 긴축 완화 등이 세계 경제 성장세 강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전망을 보면, 글로벌 경제성장세 강화에 따른 수출산업의 생산 및 투자확대가 2014~2015년 한국의 경제 성장 모멘텀을 확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나, 높은 가계 부채 부담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향후 2년간 가계의 소비 지출은 제한적인 회복세만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꿔표현하면 경기 하강 압력이 가시화될 경우, 건전한 재정 여건을 보유한 한국 정부가 재정 및 통화 정책을 동원한 경기 부양책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편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는 글로벌 경제 Top 10 이슈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10가지로 경제이슈를 전망하였다. 1. 미국의 귀환, 2. 달러화 강세, 3. 지정학적 불확실성, 4. 미국의 에너지 혁명, 5.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6. 디플레이션 리스크, 7. 연준(연방준비위원회, 미국의 한국은행과 같은 역할을 함)의 테이퍼링, 8. 기업 인수합병 증가 9. 국제 원자재 상품 시장의 슈퍼사이클 종료 10. 이머징 주식시장간 수익률 격차 확대에 보고 있다. 이 중 한국경제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면, 미국의 귀환으로 표현된 미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 것과 연방준비위원회 달러화 강세,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이머징 주식시장간 수익률 격차확대가 해당된다.

이 중 가장 큰 영향은 달러화강세라 할 수 있는데, 연방준비위원회의 테이퍼링과 미국의 귀환은 모두 달러화 강세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연준의 테이퍼링의 내용을 보면, 지난 10월 연준이 예상대로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종료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차분한 반응을 보였으며, 연준의 테이퍼링은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에 대한 확신으로 해석되었으나, 연준의 이 같은 결정으로 말미암아 유럽중앙은행 (ECB)이나 일본은행 (BoJ)과의 통화정책 간극이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지적하며, 결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이른바 금리인상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일본, 유로존, 중국의 통화당국이 현재와 같은 양적완화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달러화 강세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함으로 국내 시장 역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국내의 보고서들 역시 비슷한 시각을 보인다. 2015년을 명과 암이 공존하는 한국경제로 지정한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숫자상으로 보면, 30-50 클럽(3만달러/1인당 국민소득, 인구 5천만),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저성장/저물가지로 장기화로 경기침체라 할 수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가장 많이 지적한다. 이는 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세계경기 그리고, 대중국 수출 부진에다가 엔저에 대한 공포의 우려등이다. 특히 엔저의 경우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하겠다.

글을 맺으며

전반적인 경제전망 보고서의 경우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2015년을 전망한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제는 암울하다는 결론이다. 또한 다소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보이는데, '초이노믹스'로 요약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재정정책의 효과를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나 대부분은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초이노믹스의 실패는 일본의 장기 불황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은 어쩌면 한국경제의 기로라 할 수 있다.

2015년 IT 트렌드



2015년 을미년이 밝았다. 지난 2014년은 유독 굵직한 IT트렌드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기억된다. 여러분은 혹시 IT가 없다는 상상을 해보았는가? 가까운 지하철만 타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웹서핑을 하는 사람, 동영상을 보는 사람, 게임을 하는 사람, SNS를 하는 사람까지 대한민국은 현재 IT의 급물살을 타고 고공행진 중이다. 그 거센 물살 속에 IoT, 웨어러블 기기, 핀테크, 비콘, 3D프린터, 스마트카와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발굴되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더 밝게 만들어 주고 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15년에 새롭게 주목 받을 IT 트렌드를 살펴보고자 한다. 글 남상열 기자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1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한 스마트폰 성장통은 급기야 사춘기를 넘어섰고, 2014년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사물인터넷이라는 신의 한 수로 새로운 리즈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물인터넷은 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스마트TV, 스마트카,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의 생활가전과 인터넷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 어린 시절부터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일이 현실로 재현되면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기업의 업무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겨난 것이다. 사물인터넷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구현해 전용 앱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로봇청소기 등 생활가전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어 깜빡하고 문을 덜 닫았으면 앱에서 알림을 해주고, 로봇청소기에 연결된 카메라와 마이크를 활용해 집안에 도둑이 침입하면 알림을 통해 보안 기능까지 강화된다고 하니 바야흐로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해진다는 것을 뜻하는 바이다. BI인텔리전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인터넷에 연결되는 가전기기는 매년 평균 6.7%의 성장세를 기록해 2019년 총 18억 개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구글, 애플과 같은 공룡 기업이 IoT시장에 진출하고 국내 기업인 삼성도 퍼스트 무버 도약을 위한 한걸음을 뒀으니 2015년을 더욱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2 웨어러블 기기 Wearable Device

스마트 워치, 구글 프로젝트 글래스 등 웨어러블 기기의 성장은 2014년 최고의 이슈를 낳았다. 초창기 피트니스 기능에만 치중돼 상당히 비싼 만보계라는 인상을 남기기는 했지만 올해 다양하고 획기적인 업그레이드와 블루오션 시장을 잡기 위한 기업들의 열띤 경쟁으로 사실상 2015년에 가장 기대되는 IT 트렌드이기도 하다. 구글 프로젝트 글래스는 보안, 사생활 침해의 문제로 당분간은 성장이 더딜 거라 예상되고, 2015년의 피날레를 장식할 웨어러블 기기는 당연 스마트워치이다. 올해 각 기업에서는 다양한 버전의 스마트워치를 출시하면서 스마트폰이 없어도 단독으로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낼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떤 센세이션한 기능이 추가될지 무척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

3 3D 프린터 3D Printer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기술, 캐릭터 피규어, 자동차, 인체 기관을 만들어 내는 3차 산업 혁명의 시발점인 3D 프린터는 2014년 사용화 및 대중화로 전성기를 시작했다. 초창기 특정 계층과 기업의 용도로만 사용되어 일반인은 절대 범접할 수 없었던 가격에 많이 좌절했지만, 2015년 기술 특허 해제와 저렴한 가격 방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3D 프린터로 재미있는 추억을 남기지 않을까 예상된다. 그중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의료 분야이다. 3D 프린터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인공 심장과 같은 인체 기관을 자신에 맞게 제작할 수 있고, 귀, 연골 등을 사용해 사람의 신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없는 장기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의학 기술과 최첨단 3D 프린터가 만나 인간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것이다.



앞서 언급한 사물인터넷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속사정을 알고 보면 비콘은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근거리 위치를 인식하는 무선 센서인 비콘은 설치된 장소 근처만 가더라도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근 CF에도 나오는 거와 같이 설치만 되면 길거리를 지나갈 때 가까운 혜택을 받고 싶냐고 알림이 뜨게 되고, 알림을 확인해보면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각종 알림, 혜택, 서비스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비콘은 블루투스 4.0을 기반으로 사물 간 근거리 통신을 지원하는 NFC와 함께 온오프라인 사물 간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4 비콘 Beacon

2015년 IT 트렌드는?

2015년 IT 트렌드는 혁신보다는 진화, 모험보다는 안정을 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서 말한 4가지 이슈 이외에도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스트리밍 콘텐츠, 제3 OS의 등장과 같은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낫 놓고 있다가는 트렌드에 쫓길 수도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데이터 속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를 활용한 스트리밍 콘텐츠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올 2015년이 큰 기대가 되는 바이다.

[경제] 한국창업연구원 2015년 창업시장 전망 발표

새해 경제 전망을 날씨로 보면 '먹구름'보다 더 나쁜 '잔뜩 찌푸린 날씨'다.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가 거의 없다. 자영업 시장 역시 불황의 늪을 빠져나가긴 어렵다.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누적되고 있고, 청년 실업자들도 호시탐탐 창업 시장을 엿보고 있다. 자영업 실패율이 높다는 경고와 함께 진입을 막으려는 입구전략도 시행되고 있고, 좁은 국내시장 대신 해외시장 진출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지만, 과당경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새해 창업 시장의 틈새 희망을 살펴보았다. 글 김소연 기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힐링' 외식업, 4050 여성층 인기 얻고 부상

최근 창업 시장에 가장 두드러진 트렌드 중 하나는 4050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외식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골드퀸'으로 불리는 이들은 경제력을 갖추고, 건강과 외모 등 개인적인 삶의 질 개선과 여가 생활을 즐기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맞춰 웰빙 트렌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 건강을 얻고 스트레스도 풀자는 힐링을 내세우는 업종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업종이 한식뷔페, 샐러드바, 샷샤브, 월남쌈 전문점이다. 이들 업종의 특징은 식사를 한 후, 커피 및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한번에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 결정권을 가진 4050 여성들이 가족 또는 지인과 여러 명씩 몰려오는 경향이 있다. 한식뷔페 '풀잎채'는 한식을 일품요리로 만들어 누구나 먹기 편하게 샐러드바 형태로 풀어 놓은 뷔페식 한식당이다. 2013년 1월에 창업한 후 올해 급성장해 벌써 백화점 등 대형 쇼핑몰내 330㎡(100평)이 넘는 대형 점포만 18개를 열었다. 중산층 창업희망자의 공동 투자형 아이템으로 각광 받으면서 매장을 늘려가고 있는데, 새해는 지방으로도 본격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할머니보쌈·족발의 자매 브랜드인 '모리샤브'도 샐러드바&샷샤브 컨셉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샷샤브에 에피타이저, 다양한 일품메뉴, 디저트까지 갖추어 음식과 함께 여유로운 대화를 즐길 수 있다. 이에 대해 창업 전문가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4050 여성들이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고, 입소문을 퍼뜨려 끼리끼리 몰려다니며, 자가용 운전으로

찾아가는 소비층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불황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비외식업계도 힐링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볼스원에서 운영하는 천연향기 마케팅 사업 '에코미스트'는 창업비용이 1,000만 원인 무점포 아이템이다. 올해 초 글로벌 기업인 미국의 '센티에어'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호텔, 백화점 등에 고급 향기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유럽산 향초 전문점 '센티멘탈'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벨기에 등 유럽 6개국에서 잘 알려진 향초와 디퓨저를 판매하는 업종으로 창업비용 1억 원 이하의 여성창업 아이템으로 인기가 높다. 이들 업종은 기존 고객층인 2030 여성에 최근 증가하는 4050 세대 여성 고객이 더해지면서 성장하고 있다.

점포 가동률 높이는 '융합' 업종 인기

업종 간 융합을 통해 불황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융합이란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기존 아이템을 재결합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만족감을 주는 것이다. 융합은 단순한 차별화 전략을 넘어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업종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새해도 이러한 융합업종의 약진이 예상된다. 생소한 아이템보다는 시장성이 검증된 아이템을 융합하는 것이 보다 쉽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융합업종의 주목할 만한 점은 타겟 고객층은 세분화하되, 이에 궁합이 맞는 업종을 결합하는 점이다. '스테이크 갤러리'는 2030 여성층을 겨냥한 찜 스테이크와 쌀국수 전문점이다. 미국과 베트남식의 색다른 조합이다. 가격은 스테

이크가 7,900원~9,900원, 쌀국수가 6,500원으로 저렴하다. 특히 스테이크와 쌀국수를 함께 즐기는 세트 메뉴가 인기다. 중견 프랜차이즈 기업인 홀랄라의 '천하제일왕족발'은 족발과 칼국수를 접목해 점심과 저녁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점포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 칼국수 메뉴를 접목한 후 점포 평균매출이 30% 늘었다. 샤브샤브 메뉴에 베트남의 월남쌈을 결합한 '코코샤브'도 눈길을 끈다. 샤브샤브와 월남쌈의 전문성을 높여 웰빙족들을 유혹한다. 무제한 샐러드바도 즐길 수 있다. 특히 육수는 고수, 팔각, 숙주, 계피, 정향 등 몸에 좋은 한약재를 넣고 10시간 이상은 은한 불에 우려내 깊고 진한 맛을 내는 것으로 소문나 있다. 부산 등 지방에서 히트를 치고 최근 서울에 진출 본격적으로 수도권 공략에 나섰다. 경쟁이 심한 커피 전문점들도 새로운 메뉴의 복합화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카페베너는 여름철에는 다양한 팔빙수 메뉴를 선보이고 겨울철에는 케익과 디저트, 팔죽 등 메뉴를 출시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카페두다트는 커피 및 음료에 고급 베이커리를 접목한 것이 장점이다. 한 카페 창업 컨설팅 전문가는 "올해 돌풍을 일으켰던 눈꽃빙수 전문점들이 겨울철 비수기에 극심한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데도 보듯이, 여름과 겨울이 뚜렷한 우리나라 날씨 특성상 계절별 메뉴의 융합이 중요한 성공 포인트"라고 말했다.

‘스몰’에 플러스 알파 업종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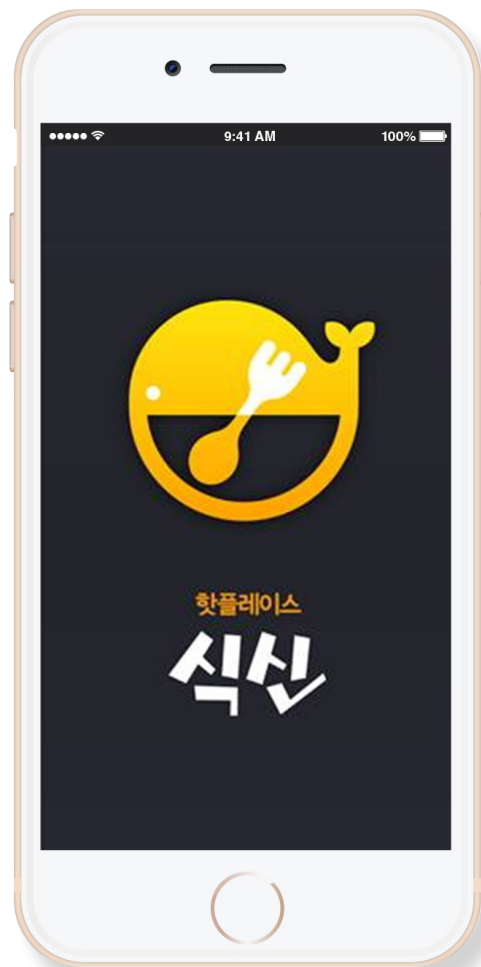
불황기 창업시장의 화두는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 창업자는 적은 투자 비용’이다. 이러한 특성에 맞게 올해 돌풍을 일으킨 업종이 바로 스몰비어와 밥버거 전문점이다. 문제는 적게 투자하고도 적절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이다. 올해 주머니가 얇아진 소비층을 겨냥한 스몰비어, 밥버거 전문점 등이 돌풍을 일으켰지만, 사실 창업자들의 수익은 적었다. 벌써 폐점하는 점포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새해는 스몰에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업종이 인기를 끌 전망이다. 삼각김밥·규동 전문점 ‘오니기리와 이규동’은 한국인 취향에 맞는 따끈따끈한 밥으로 즉석에서 만든 삼각김밥과 규동(일본식 쇠고기 덮밥)을 판매한다. 가격은 삼각김밥이 1,000~2,000원대, 규동이 5,000원 대로 저렴한 편이다. 그 외에도 세간에서 화제가 된 컵밥과 밥버거도 판매하고, 최근 출시한 신 메뉴 잡채규동도 인기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한국형 일식 메뉴들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더해 가고 있다. 창업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월평균 순이익이 400~500만 원 선으로 생계형 창업자들에게 적합한 업종이다.

‘한솔도시락’도 최근 1인 가구와 캠핑족 증가, 가게 맞벌이의 보편화에 따른 도시락 및 간편식 수요 증가에 따라 그 인기를 더해 갈 것이다. 한솔도시락은 소비자 가격은 올리지 않고, 점포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신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여성층을 겨냥한 샐러드 시리즈를 출시했고, 어린이 고객층에 맞는 ‘폴리도시락’ 메뉴를 선보였다. 어린이 대상 교육 애니메이션 ‘로보카폴리’를 적용한 용기 디자인이 특징이고, 어린이 건강에 유해한 식용타르색소 및 합성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중장년층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돈치불고기도시락, 체육강된

장비빔밥 등 한식 메뉴라인도 강화했다. 이밖에 새해는 매출 부진 점포의 업종전환이 늘어날 전망이다. ‘오징어와 친구들’, ‘본초불닭발’ 등이 최근 인기를 끄는 업종이다. 적은 창업비용으로 대박 점포의 기술을 전수받는 전수창업도 증가할 것이고, 주로 임대료가 적은 시 외곽 상권에서 캠핑장 분위기의 고기 및 주류를 판매하는 ‘아웃도어키친’도 주목받고 있다.

맛집 스마트폰 앱 마케팅 활발

스마트폰 맛집 정보 앱이 자영업자들에게 인기를 끌 전망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일반화되면서 실시간으로 지역 맛집 정보를 찾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맛집 정보 앱인 옐프가 이미 보편화되었다. 전단지과 상가책자 등 기존 마케팅 방법이 비용 대비 효과가 점차 떨어지고 있고, 소셜커머스 역시 단발성 이벤트, 과도한 할인율, 실시간으로 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나름대로 맛에 대해 자신이 있는 점포들은 적극적으로 맛집 정보 앱을 활용하면 효과가 높은 편이다. 대표적인 맛집 추천 앱은 ‘식신타플레이스’로 실시간으로 저렴한 가격에 점포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식신타플레이스는 위치기반 SNS인 싸이이 출시한 앱인데 지난해 이용자가 60만 명이나 증가했다. 이처럼 맛집 정보 앱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마케팅 플랫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野外 授業



[탐방] 홍대 캠핑요리 전문점 야외수업을 가다.



젊음의 거리 홍대의 한 골목 어귀에는 야외수업이라는 캠핑요리전문점이 있다. 오로지 캠핑의, 캠핑에 의한, 캠핑을 위한 요리전문점으로 모든 인테리어 소품은 물론이거니와 나오는 메뉴마저 모두 캠핑 전문 요리이다. 야외수업은 바깥 외관부터 눈에 띈다. 인디언텐트를 비롯해 릴렉스체어까지 설치되어 있어 딱봐도 캠핑에 특화된 카페임을 지레 짐작할 수 있다. 지난 12월 30일에 찾은 야외수업은 손님들로 하여금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부서 송년회로 모인 사람들, 연인끼리 찾은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끼리 조용하게 즐기고 있는 손님도 눈에 띄었다. 손님들의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와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90년대 가요가 어우러져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었다. 1층에는 단체손님들을 위한 단체석이 마련되어 있고, 2층에는 바다, 숲, 계곡 등 캠핑여행을 테마로 한 감성 넘치는 좌석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내부 인테리어 또한 각 테마에 맞는 소품으로 눈길을 끈다. 자리를 잡고 메뉴를 고르던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전통주다. 안동소주, 오메기술 등 40여 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전통주를 판매하고 있어 손님들에게 또 다른 맛과 재미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캠핑 1세대로서 캠핑 파워블로거인 김성중씨는 야외수업의 매니저로서 필드에서 직접 만들어 온 요리를 그대로 접목시켜서 손님들에게 찬사를 들어오고 있다. 해물가득 매콤한 해물떡볶이, 캠핑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참숯그릴 와규 바비큐, 가쓰오부시가 올라가 더욱 특별한 해물파전, 매콤한 등갈비와 치즈가 잘 어우러진 치즈 등갈비 등 음식을 먹다 보면 캠핑장에 온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조금 출출하다 싶으면 차돌라면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캠핑문화가 제 아무리 발달했다 하지만 한 겨울에는 떠나기 쉽지 않은 법! 바쁘고 고된 일상에 치여 오랜만에 캠핑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다면 홍대 야외수업에 찾아가보는 게 어떨까? 글 사진 남상열 기자



야외수업
전화번호: 02-6241-6789
위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8-117
영업시간: 오전 11시~ 오후 11시 (연중무휴)

[연예] '미녀의 탄생' 한예슬, 中 '투도우'서 한국드라마 1위! '폭발적인 인기' 국내를 넘어 중화권에서도 식지않은 인기 입증! '한류여신'



电视剧: 美女的诞生

评分: ★★★★★ 9.8 豆瓣 暂无

剧名: 미녀의 탄생 优酷开播: 2014-11-02

上映: 2014-11-01 类型: 剧情 / 都市 / 偶像 / 言情 / 时尚

地区: 韩国

主演: 朱相昱 / 韩艺瑟 / 郑锡元 / 王智媛 / 韩相赫

总播放: 400,458,379 评论: 103,504 / 收藏: 121,625

今日新增播放: 9,210,333 集均播放: 20,454,808

指数: 125,036,617

更新至19 / 共20集 | 每周日周一同步热播 收藏

播放正片

Tudou 내 한국 드라마 순위

电视剧排行榜

全部	内地	港台	日韩	海外
01	美女的诞生	297.4万		
02	匹诺曹	202.0万		
03	摩登农夫	26.14万		
04	清潭洞丑闻	19.49万		
05	天国的眼泪	15.97万		
06	听见你的声音	15.51万		
07	没关系，是爱情啊	13.79万		
08	对我而言，可爱的她	12.00万		
09	坏家伙们	11.33万		
10	屋塔房王世子 韩语版	10.16万		

Tudou 중국 전체 드라마 순위

电视剧排行榜

全部	内地	港台	日韩	海外
01	甄嬛传	307.5万		
02	美女的诞生	297.4万		
03	鹿鼎记	238.4万		
04	匹诺曹	202.0万		
05	飞虎 II	200.1万		
06	八卦神探	154.2万		
07	傻儿传奇	98.77万		
08	神雕侠侣	78.56万		
09	花红花火	75.91万		
10	武则天秘史	66.99万		

배우 한예슬이 국내를 넘어 중화권에서도 큰 사랑을 받으며 식지않은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SBS 주말 드라마 '미녀의 탄생(극본 윤영미, 연출 이창민)'에서 사랑스러운 캐릭터와 차원이 다른 미모로 친근하면서도 워너비적인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는 그녀가 국내를 넘어 해외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으며 한류 여신으로의 파력을 입증한 것.

한예슬이 이끌고 있는 드라마 '미녀의 탄생'은 중국 동영상 사이트 '투도우(tudou)'에서 한국드라마 1위, 중국 작품을 포함한 전체 드라마에서 2위에 자리잡으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유쿠(Youku)'에서는 4억 뷰(view) 이상의 시청 조회 수를 기록,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남다른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그녀는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주목 받는 여배우 검색 순위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 '배우 한예슬'에 대한 중화권 팬들의 높은 관심 역시 실감케 했는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듯 한예슬은 '소후닷컴(Sohu.com)'내 '키이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깜짝 새해 인사를 전해 중국 현지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그녀의 이러한 인기는 드라마 속 사랑스러운 모습과 더불어 솔직 당당한 그녀의 아름다움이 중국 시청자들에게도 호감으로 다가섰기 때문이라는 평. 이처럼 한예슬은 지난 3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국내외에서 변치 않는 사랑을 받고 있다. 오랜만에 안방극장 복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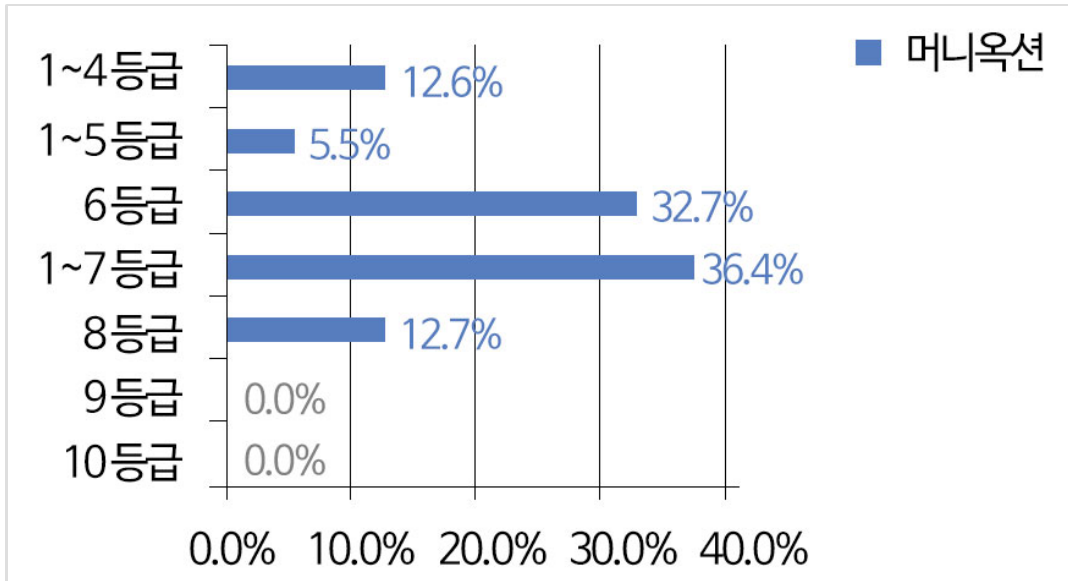
에도 1인 2역에 버금가는 연기를 생동감 있게 그려내는가 하면, 남녀불문 시선을 사로잡는 완벽한 미모와 다채로운 매력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국내외 러브콜이 쇄도해 앞으로 그녀가 선보일 활발한 활동에 기대를 집중시키고 있다. 한편, 한예슬을 비롯해 주상욱, 왕지혜, 정겨운 등이 열연을 펼치고 있는 SBS 주말드라마 '미녀의 탄생'은 매주 주말 밤 10시에 방송되며, 종영까지 단 2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MTB한대로 지구상 최고의 스릴을 즐기자! 다운힐(Down Hill)

국내 자전거거인구 천만시대를 넘어서면서 각양각색의 종목이 생겨났다. 부담 없이 한강변을 쉬엄쉬엄 달리는 로드바이크가 있는 반면 거친 산악을 달리는 MTB가 있다. MTB는 또 크로스컨트리, 올마운틴, 다운힐로 나뉜다. 크로스컨트리는 포장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는 종목이고, 올마운틴은 자전거로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말한다. 다운힐은 명칭 그대로 오로지 산을 내려가기만 하는 종목으로 가장 난이도가 높고 그만큼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빠르면 시속이 80km까지 달한다고 하니 대충 짐작이 가는 바이다. 다운힐의 스피드와 스릴이 궁금해 다운힐 동호회들과 직접 파주 명봉산으로 향했다. 파주 명봉산은 정식 코스는 아니나 등산객이 드물고 경사도가 깊어 다운힐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고 한다. 다운힐은 반드시 셔틀차량이 있어야 하는데 자전거를 싣고 정상에 올랐다가 또 회원들이 출발을 하면 셔틀차량은 도착장소에서 대기해 해야 한다. 필자도 안전장비를 갖추고 다운힐 자전거에 올라 출발을 해보았다. 나무뿌리, 진흙, 낙엽 등으로 뒤덮인 코스는 도저히 자전거로는 갈 수 없는 코스이나 동호회 사람들은 그 길을 뽕뽕 잘도 달린다. 또 코스 중간에는 점프대도 있어서 하늘을 나는 쾌감까지 얻을 수 있는게 바로 다운힐이다. 분명 자전거에 안장이 있지만 안장에는 앉지 않는게 정석이라고 한다. 엉덩이를 들고 타다가 부상을 입을 거 같으면 자전거를 버리고 몸을 보호하라는 의미라고 한다. 그만큼 갖은 위험이 도사리는 MTB 종목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스릴과 성취감은 극에 달할 것이 뻔해 보였다. 다운힐은 높은 기술과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로스컨트리, 올마운틴 종목을 거친 뒤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초보자는 다운힐 전문 동호회에 가입해서 기초부터 배워야 한다고 한다. 파주 명봉산 다운힐 코스는 총 3개로 이뤄져 있으며,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812-1번지로 검색하면 된다. 글 남상열 기자



[경제] 대출직거래 P2P금융, 신용등급 7등급 이내 '전체 87.2%'가 이용



국내 도입 7년 클라우드펀딩(P2P) 대출, 국내 거래 규모의 70~80% 를 차지하는 한국금융플랫폼이 운영하는 머니옥션 이용 고객의 신용 등급별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P2P금융이 소시민들의 신용 등급을 유지시켜주는 최선의 방어선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신용평가(주) 13년도 자료에 따르면 금융업종별 신용등급별 신용대출이 저축은행(7~10등급 64.1%)이나 대부업(7~10등급 86.6%)과 달리 P2P금융의 대출이용 고객층은 7등급 이내가 전체 이용자의 87.2%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신용관리를 위해 선택 하는 스마트한 금융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출이나 카드대금의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액 10만원 이 상 시 단기 연체로 처리되며 해당 정보는 신용평가사를 거쳐 금융 사 에 공유된다. 연체기록은 기간이 길거나 금액 또는 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연체가 발생하면 대다수 는 신용등급을 5등급 이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8등급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 의 주의를 촉구했다.

‘P2P(Peer to peer, 개인 대 개인) 대출’은 자금이 필요한 개인 또 는 사업자가 필요한 대출금 규모와 이자율, 대출금 사용처, 상환계획 등을 게시판에 올리면 투자회원들이 이를 보고 투자하는 방식이다.

머니옥션 P2P대출은 금융기관의 자금이 아닌 개인 투자자의 자금 을 모아 대출을 실행하므로 타 금융기관과 신용등급평가기관에 대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신용등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장점 이 있다.

제도권 편입, 목전에 와 있어

업계는 국내시장에서 P2P금융이 선진국처럼 보편적 금융 서비스로 자리잡기 위한 P2P금융의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곧 정립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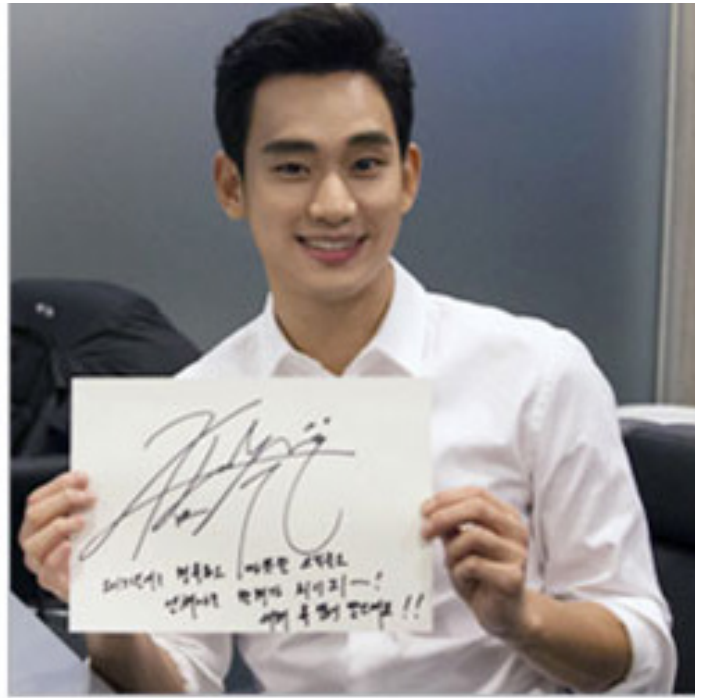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클라우드펀딩의 법제화를 지시했다. 같은 해 6월 클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 장법 개정안(새누리당 신동우 의원 발의)이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상 태다. P2P 금융 투자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투자자들의 이자 소

득은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정부 주도의 제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P2P 금융대출 세부규칙을 마 련, 대출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법제화 된다면 투자회원의 폭발적인 증가가 기대되며, 특히 제도권 에 편입될 경우 거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채권 거래 등 다양한 시장 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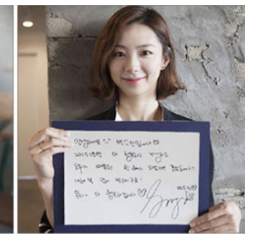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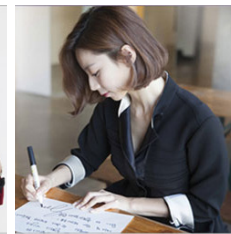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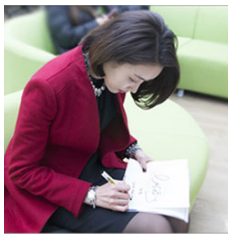
실제 지난 2010년 P2P금융을 제도권으로 품은 미국은 거래 과정에 서 나오는 채권의 법적 거래나 2년간 보유한 후 분할 상환 받는 채권 의 3자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Signature]

2015년이든 행복하고 따뜻한 소식으로
 언제나 반겨 주시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스타들의 새해 인사



새해 마니 반갑네!
 2015 에는 모두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Signature]
 God Bless!
 김려3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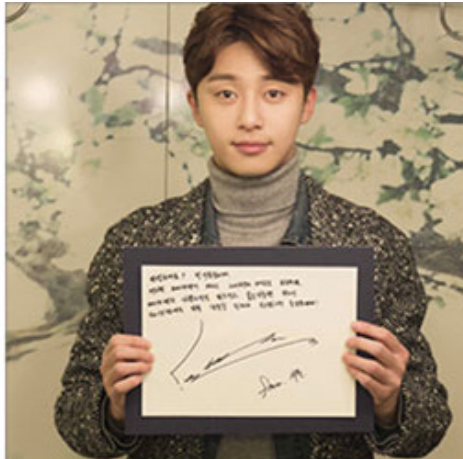
[Signature]

망가혜
 2015년 수많은 모험들이
 이루어지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 반두진입니다
 2015년엔 더 흥분되고 전성기로
 모두가 따뜻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 더 흥분해봅시다
 [Signature] 반두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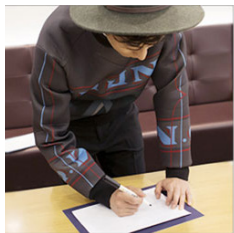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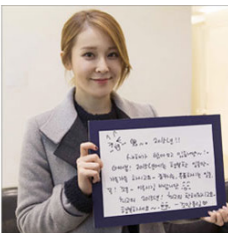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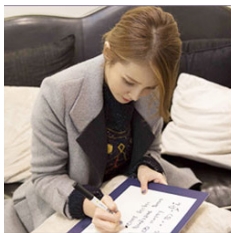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박은빈입니다 ♥
 2015년엔,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일들이
 좋은 쪽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부디 평안하시고, 웃는 일들만 가득하시길, 비람에는 ♡
 모두 행복하세요 ♥ 저도 더욱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 화이팅!!!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박은빈 2015



안녕하세요! 이현
 항상 행복하세요 ~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안녕하세요!! 박서용입니다.
 이젠 2014년이 지나고 2015년이 다가온 것 같은데,
 2014년의 나뭇기억은 잊어서도 좋은가끔만 반해서
 2015년에는 더욱 행복한 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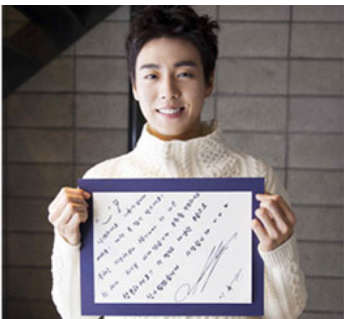
박서용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 가득 하시구요~ 몸짱하는, 무포함하는 일들
 꼭! 포용~ 이루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2015년! 최고의 한해되시길요.
 행복하세요~ 언니 - 조안음임 ♡

안녕하세요. 배우 배누리입니다.
 2014년 이고싶은 일들로 가~두천해가
 되길바라며! 무사무사해도 건강이 최고!!!
 활발한 활동 & 좋은소식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흥흥흥!!!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민



안녕하세요. 이현규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이나마 더 나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더 멋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 ~ ~

홍수현
 2015년 마음 건강하시고,
 새해 복" 항상 받으세요 😊

2015.03 Coming Soon

